

---

**위기를 기회로**  
**스타트업 · 벤처기업 지원방안**

---

**2020. 4. 8.**

**관계부처 합동**

# 목 차

<b>I. 현황 및 필요성</b> .....	<b>1</b>
<b>II. 자금 공급 지원방안</b> .....	<b>2</b>
<b>[ 추진 방향 및 대책 개요 ]</b>	
<b>1. 스타트업·벤처 융자·보증 공급 확대</b> .....	<b>3</b>
①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집행	
② 민간은행의 스타트업 특별 대출프로그램 마련	
③ 창업·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 신설 (기보)	
<b>2. 위기를 기회로,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</b> .....	<b>4</b>
① 정책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화로 투자 확대 견인	
② 코로나 19 극복 유망기업에 모태펀드 직접 투자	
③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 지원 (금년도 한시 적용)	
④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「K-유니콘 프로젝트」 추진	
<b>III. 향후 추진일정</b> .....	<b>6</b>

## I. 현황 및 필요성

- ◇ 스타트업·벤처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전개가 예상되는 「디지털 新경제」를 이끌어갈 핵심 경제주체
- ◇ 스타트업·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,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 필요

□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등 대책을 수립·시행 중

- \*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(2.7)
- 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 방안(I) (2.12)
- ③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·경제 종합대책 (2.28)

○ 매출기반과 재무여건이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

□ 스타트업·벤처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벤처투자 역시 미팅 취소 및 투자결정 지연 등으로 투자 심리가 냉각

- \* '20.1~3 벤처펀드 결성 현황 : 4,468억원으로 전년동기 (6,414억원) 대비 30.3% 감소
- \* VC 105개사 중 52.4%가 3월 투자상담 건수가 2월보다 감소 응답 (3.31~4.1, 한국벤처투자)

○ 최근 스타트업·벤처 업계의 자금경색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

⇒ 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추가 공급 및 민간의 벤처 투자 심리 회복을 중점 추진

## II. 자금 공급 지원방안

### 추진 방향

- ◆ 금년말까지 총 2.2조원 규모의 용자·투자 자금을 추가 공급
  - ① 창업기업자금 확대 등 용자 및 보증 공급을 1.1조원 추가 지원
  - ②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벤처투자도 1.1조원 추가 공급 유도
- ◆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,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

(단위 : 개사, 억원)

지원제도	기존 계획		이번 대책 (추가)	
	지원기업 수	지원규모	지원기업 수	지원규모
<b>용자 + 보증</b>				
<b>용자</b> 창업기업자금	8,500	16,000	3,000	5,000
민간 특별자금	-	-	1,300	2,000
<b>보증</b> 코로나 특례보증	-	-	2,300	4,000
<b>벤처투자</b>				
<b>민간</b> 모태 자펀드	700	16,000	300	7,000
성장지원펀드	200	14,000	50	3,400
<b>공공</b> 모태 직접투자	30	500	1,430	1,000
<b>합 계</b>	<b>9,430</b>	<b>46,500</b>	<b>8,380</b>	<b>22,400</b>

# 1

## 스타트업·벤처 용자·보증 공급 확대

- ◆ 스타트업을 위해 마련된 창업기반지원자금 ('20. 1.2조원)의 집행 현황\*을 감안하여, 정책 및 민간 자금 긴급 수혈

\* 3월말 현재 2,814개 기업에 49.2% (5,908억원) 집행

- ◆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보증 등 보강대책으로 일시적인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

### ①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 확대 및 신속한 집행

- 중진기금 내 창업기반지원자금을 5천억원 증액

⇒ 창업기업 전용자금\*을 1.6조원 → 2.1조원으로 확대

\* 창업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 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'20년 예산은 1.6조원 (창업기반지원자금 1.2조원 + 일자리창출촉진자금 0.4조원)

-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심사·평가\*를 통해, 스타트업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

\* 1.5억원 이하에 대해 기술사업성 평가시 "패스트 트랙" (29개 → 15개 항목) 적용

### ② 민간은행의 스타트업 특별 대출프로그램 마련

- '15~'19년간 정부사업에 참여한 스타트업 중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'자상한 기업'인 민간은행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저금리 상품 공급

\*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, 최저 1.87% 금리까지 적용 가능 (신한은행)

\* 자상한 기업 :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과 자발적으로 상생을 추진한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하며, 현재 11개사가 선정 (네이버, 포스코, 신한·우리은행 등)

### ③ 「창업·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」 신설(기보)

- (규모) 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추가로 신규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금년말까지 4천억원 규모로 공급
  - ① (약식보증) 빠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, 약식 기술평가만으로 5천만원씩 일괄 지원 (평가항목 33개 → 10개로 대폭 축소)
  - ② (고용유지보증)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스타트업·벤처기업에 대해,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지원
- (절차) 약식보증의 경우, 기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보증이 지원되는 원스톱 지원체제로 운영
  - \* 기보와 협약이 체결된 기업·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실행

## 2 위기를 기회로,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

- ◆ 모태펀드 등 정책펀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여, 벤처투자 공백을 최소화

### ① 정책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화로 투자 확대 건인

-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금년도 투자목표 상향 유도
  - (모태 자펀드) '18~'19년 결성 펀드는 35%(통상 연간 23%), '20년 신규펀드는 20%(통상 결성당해연도 16%)를 목표로 제시
    - ⇒ 총 2.3조원 [( '18~'19년 5조원) × 35%] + [( '20년 2.5조원) × 20%] 투자 유도
  - (성장지원 자펀드) '18~'19년 결성 펀드의 30%(통상 연간 24%) 목표 제시
    - ⇒ 1.7조원 [( '18~'19년 5.7조원) × 30%] 투자 유도

- 상향된 투자목표를 달성하는 자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
< 투자목표 달성 인센티브 패키지 >

구 분		투자목표 달성시
투자위험	우선손실	4월 이후 투자분의 손실액 최대 10% 우선 충당*
보수체계	성과보수	정책펀드 수익분의 10%를 운용사에 추가 제공
	관리보수	투자 목표 초과 달성시, 초과분의 1% 지급
출자우대	출자비율	내년도 출자비율 상향 (최대 +10%p)
	평가방식	내년도 정책펀드 출자 신청시 가점부여

\* 단, 펀드별 재정 출자비율 이내

⇒ 이번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, 정책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의 투자 규모가 금년중 기존 3조원 → 4조원으로 약 1조원 확대될 전망

**② 코로나 19 극복 유망기업에 모태펀드 직접 투자**

-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모태펀드가 1,500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프로그램 본격 가동

\* 핵심분야 (예시) : 바이오, 진단키트, 헬스케어, 비대면·비접촉 디지털화 분야 등

-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유망 스타트업 등에 소액 투자자금 (기업당 최대 1억원) 1,000억원 집중 공급

\* 기업가치 산정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1개월 내에 신속히 집행 (기존 2개월 소요)

- 벤처캐피탈이 선별한 기업은 R&D 소요자금 추가 매칭투자 (500억원)

\* 투자분야 : (기존) 소재·부품·장비 → (향후) 비대면 디지털 분야 등으로 확대

### ③ 벤처펀드의 신속한 결성 지원 (금년도 한시 적용)

- 300억원 이상 펀드의 경우, 당초 계획의 70% 이상 모집을 완료하면 펀드 결성을 허용 (Fast-Closing)하는 제도 도입 (현재는 100% 모집시 완료)
  - 다만, 최초 펀드 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모집 완료 독려
- 산재기금 (600억원) 등 투자대상 벤처펀드를 조기에 선정하고, 투자 설명회 등 연기금·은행 등의 조기 출자도 유도

### ④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「K-유니콘 프로젝트」 추진

- 고용·매출 등 성장 잠재력을 확보한 「아기 유니콘 (Baby-Unicorn)」을 발굴하여, 시장개척·용자·보증 등 패키지 지원 (~'22, 200개 기업)
- 유니콘 도약이 가능한 「예비 유니콘 (기업가치 1,000억원 이상)」에게 특례 보증 (최대 100억원) 및 대규모 투자유치 기회 제공 (~'22, 100개 기업)
  -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기보가 50억원까지 1:1로 매칭 보증하는 레버리지 보증 신설 (약 2,000억원) 및 점프업 펀드 1조원 공급

## Ⅲ. 향후 추진일정

1-1. 창업기업 용자지원 확대		(시행시기)
• 창업기반자금 규모 확대	▶중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	4월말
• 평가절차 개선 등 신속 집행	▶정책자금 지침 변경 후 시행	4월말
• 민간자금 (은행) 저금리 용자지원	▶신한은행 신규대출 프로그램 출시	5월초
1-2. 창업·벤처 보증지원(기보)		
• 코로나 특례보증 및 원스톱 지원	▶기보 특례보증 지침 시행 등	4월말
2. 민간 벤처투자 촉진방안		
•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	▶모태·성장지원 펀드 규정 개정	4월말
• 모태펀드 직접투자 및 조기출자 유도	▶모태펀드 규정 개정	4월말
• K-유니콘 프로젝트 추진	▶대상 선정부터 단계적 지원	4월중